

이차전지 특성화대학 지원 유치 총력

전북대, 협력 간담회 개최 4년간 전문인력 600명 양성 산·학·관 연구 등 협력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7일 지자체, 기업 등과 이차전지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유치 및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력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3개 대학을 선정해 대학 당 120억 원 이상의 국비를 투입해 대학의 학사급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교육부 사업이다. 선정 대학은 4년 동안 인재양성 체계를 마련하고, 산업체 수요 기반의 교육과정 개설·운영과 우수교원 확보, 이차전지 분야의 첨단장비 집적화 및 운영 등의 첨단산업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이날 협력 간담회에는 전북대를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입주 및 투자 기업인 (주)비나텍, (주)정식케미칼, 에너비배터리솔루션, 데카머티리얼, 위에너지, 제이솔루션, 백공산업, 이쿠브머티리얼즈, 에너지11, 코솔로스, 성현, VM PLUS, (주)엠펙터스, 성일하이텍(주) 등의 기업



전북대학교는 7일 지자체, 기업 등과 이차전지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유치 및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력 간담회를 가졌다.

이 참석해 이차전지 특성화대학 추진 및 산업체 교육과정 개발 등의 의견을 건의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전북대 박상호 교수(공대 화학공학부)는 매년 융합전공 100명, 재직자 전문 교육과정 50명을 목표로 총 60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략과 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양오봉 총장은 "오늘 협력 간담회는 아울러, 기업의 현장문제 해결형 교

육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기업과의 연계 및 협업 강화 전략을 제시, 새만금을 이차전지 산업 분야의 전진기지로 구축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행·재정적 지원도 더해질 것으로 보여 이차전지 특성화대학 사업 유치와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오봉 총장은 "오늘 협력 간담회는 전북대를 비롯한 각 기관이 보유한 이

차전지 분야의 핵심 역량을 모아 지역 사회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지속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면서 "이차전지 특성화대학 사업을 통해 전방위적인 대학-지역-기업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구축과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아동·청소년·노인 위한 사업 발굴

전북자치도교육청-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 인성 교육·노인 일자리 활성화 '맞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7일 5층 회의실에서 대한노인회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김두봉)와 바른 인성 함양 및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거석 교육감, 김두봉 회장과 14개 시·군지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교육활동과 연계한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아동·청소년과 노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두봉 회장은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대한노인회가 힘을 보탬 수 있어 기쁘다"면서 "전북의 학생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재로 성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7일 5층 회의실에서 대한노인회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와 바른 인성 함양 및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거석 교육감은 "아이들의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각계각

층에서 경험을 쌓아온 어르신들의 참여로 교육현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에는 임시설명회가 상시적으로 열린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학생, 학부모가 거리와 장소로 인한 진학 정보 공백을 해소해 해 도내 어디서든 임시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프랑스 주요 대학과 학생교류 세부협정 체결

장물랭 리옹 3대학과 내년부터 1년에 100여명씩 학생 교류 공동연구 프로젝트 위한 연구원 교류·교환교수 제도 논의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프랑스 장물랭 리옹 3대학(Universite Jean Moulin Lyon 3)과 기본 협정(MOU)을 맺고, 학생교류와 교수 및 연구자 간 교류를 위한 세부협정(MOA)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전북대에서 진행된 협약식에서 장물랭 리옹 3대학 Manuel Jobert 부총장 일

행은 2025년부터 매년 양교 10여 명의 학생교류를 하고 또 박사학위, 대학 간의 학술교류 활성화, 공동 연구 추진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2025년 9월부터 장물랭 리옹 3대학의 한국어학 학과에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우수한 박사과정생

을 강의전담교수로 채용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같은 날 영국 런던 퀸메리대학(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국제화 담당자인 Fernando Barrio 교수가 전북대를 찾아 MOU를 맺고, 학생교류 및 석사과정 1+1 박사학위 운영 등에 대해 논의했다.

퀸메리대학은 런던대학교 연합 대학 중 가장 크고 다양한 학부를 보유, 런던 중심부에 위치해 다양한 인턴십을 운영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사노조 "정읍 A고, 학교 운영 정상화하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교육감 직권으로 정읍A고 행정실장의 결재라인을 시정하고, 기간제 교사 채용 등에 관련한 감사를 즉각 실시하라."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작년 10월경 정읍A고에 관련된 제보를 받아 자체조사에 착수, 사립학교인 A고의 운영과 관련해 미시적인 부분만을 다수 발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전북교사노조의 성명에 따르면 정읍 A고의 한 교사로부터 제보를 받은 바 있다. 제보의 내용은 A교사가 질병휴직을 정상적으로 신청했음에도 행정실과 이사회에서 늦게 처리하는 바람에 애꿎은 A교사만 무단 결근자가 됐고, 급여의 일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자체 조사를 진행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정읍 A고는 전임

이사장이 아직까지도 학교 주요 행사에 참석해 이사장 처사를 하고, 졸업앨범에 등장한다는 것이다. 전임 이사장의 머느리는 현재 A고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유는 알 수 없으나 A고의 공문 결재라인은 교사(기안)-교감(검토)-행정실장(협조)-교장(결재)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교사의 휴가 및 시간외근무에도 행정실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일반적인 경우 행정실장은 교사에 대한 지도 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행정실 고유 권한인 재정 품의에만 협조자의 위치에 있다는 주장이다. 더군다나 A교사는 이 결재라인에 따랐음에도 행정실과 이사회와의 협조 부족으로 피해를 보게 됐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행정실장과 친분이 두터운 행정실 직원의 자녀가 기간제 교

사 채용에 응시했는데 행정실장이 직접 면접에 참여했다는 것. 게다가 행정실장의 머느리 역시 기간제 교사로 근무중이라고 했다.

이에 전북교사노조는 앞으로도 정읍 A고의 정교사 채용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질병휴직을 신청했음에도 피해자가 된 A교사는 학교측에 이의제기를 했으나, 돌아온 것은 각종 업무 비협조 및 결재 지연이었다고 주장했다. 한 예로 A교사의 담당업무 중 하나인 도서관 폐기 도서관 정리는 행정실이 바쁘다는 핑계로 6개월이 미뤄져 도서관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한 예로 A교사의 담당업무 중 하나인 도서관 폐기 도서관 정리는 행정실이 바쁘다는 핑계로 6개월이 미뤄져 도서관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한 예로 A교사의 담당업무 중 하나인 도서관 폐기 도서관 정리는 행정실이 바쁘다는 핑계로 6개월이 미뤄져 도서관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A교사는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식에서 미네르바학부 조순희씨가 학생 최고의 영예인 '수퍼스타 학생상'을 수상했다.

"후배들 대학 생활에 도움 되길"

만학도 조순희씨, 전주대 '수퍼스타상' 상금 기부

전주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식에서 미네르바학부 조순희(54) 학생이 학생 최고의 영예인 '수퍼스타 학생상'을 수상해 화제다. 특히 조 씨는 상금 100만원 전액을 모교에 발전기금으로 기부하는 선한 영향력을 펼쳐 귀감이 되고 있다.

7일 전주대에 따르면 조순희 씨는 익산 지역 섬유 명장 1호이자 기업대표, 프로 가수로 활약해 온 베테랑 문화 인사다. 늦깎이 나이에도 불구하고 문화콘텐츠 분야 전문가의 꿈을 안고 2021년 전주대 미네르바학부에 입학했다.

조 씨는 "생각했던 것보다 전주대의 대학 생활이 너무나 만족스러웠고, 전공 학습을 통해 인생 2막을 설계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됐다"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조 씨를 지도해 온 미네르바학부 김병오 교수는 "적지 않은 나이에

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줄곧 우수한 성적을 받아왔으며,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수업에 참여해 왔다고 말했다.

한편 조씨는 현재 전주 FM 방송국 '진현의 소리문화콘텐츠쇼! PD 겸 DJ로 활약중이다.

전주대 관계자는 "만학도 조순희 씨의 행보에 격려와 찬사를 보내며, 이번 사례가 다른 성인학습자들에게도 용기와 자극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미래융합대학 미네르바학부는 '인문+공학' 융합형 지역혁신 인재를 양성하고자 문화콘텐츠학과와 기술경영공학과가 전공 통합해 지난해 신설됐다. 미래융합대학은 대학 진학을 원하는 직장인과 사회인들을 위해 주중 저녁 수업과 주말 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학교는 개교 60주년을 기념해 서문덕 대표이사와 정경택 총장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전주대 개교 60주년 명예박사 학위 수여

립멘 서문덕 대표이사·자카르타국제대 정경택 총장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개교 60주년을 기념해 서문덕 대표이사와 정경택 총장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운주리홀에서 신동아학원 차준순 이사장과 박진배 총장 등 내외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문덕 대표이사와 정경택 총장에 각각 명예경영학박사와 명예 교육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주)립멘 서문덕 대표이사는 선도유지와 부패 방지 등을 위한 산소흡수제, 가스 흡수제, 수분 흡수제 등을 제조 생산해 국내 및 해외로 판매·수출하고 있다. 일본에서 전량 수입 사용하던 탈산소제를 순수 국내기술로 자체 개발한 결과 1990년부터 국내 식품업계는 물론 미주, 동남아, 중남미, 유럽, 오세아니아 등 전 세계적으로 수출의 폭을 넓혀 국가 수출 증대에 이바지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 '백만불수출의 탑', 2017년 '금탑산업훈장', 2022년 '삼백만불 수출탑'을 수상했다. 특히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불우한 아동들을 지원하는 '인친 아이리더' 사업을 통해 정기 후원하고 있다.

정경택 자카르타국제대학교 총장은 1989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미국 블룸필드대학교 교수로 임용돼 34년간

재직했다. 이 중 25년간 대외부총장을 역임하며 미국 내 유색인종과 소수민족 학생 및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대학 교육의 기회와 재정적 지원을 제공했다.

또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유네스코 세계도시연합회 대외 총장 포럼 부의장으로 활동하며 세계 45개국 대학 간 교류와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현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국제대학교에서 총장으로 재직하며 동아시아 지역의 학생들에게 선진화 된 교육과 신앙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교육 선교를 실천하고 있다.

서문덕 대표이사는 "명예박사 학위를 위 감사드리고, 전주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경택 총장은 "앞으로 모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지속해서 교육 선교를 통한 국제적 사명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배 총장은 "서문덕 대표이사와 정경택 총장님은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기며 사회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인물"이라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